|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②	2	35	④	2	35	⑤	2
2	③	3	19	⑤	2	36	②	3	36	②	3
3	①	2	20	④	2	37	①	2	37	①	2
4	④	2	21	⑤	3	38	④	2	38	③	2
5	①	2	22	③	2	39	①	2	39	④	2
6	⑤	2	23	③	2	40	③	2	40	⑤	2
7	②	2	24	④	2	41	①	2	41	④	3
8	③	3	25	⑤	3	42	②	2	42	④	2
9	④	2	26	⑤	2	43	②	2	43	④	2
10	⑤	2	27	④	2	44	④	2	44	③	2
11	①	2	28	①	2	45	③	3	45	②	2
12	④	3	29	⑤	2						
13	②	2	30	④	3						
14	①	2	31	②	2						
15	②	2	32	①	2						
16	③	2	33	③	2						
17	③	3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따르면 양천상은 책을 독송하고 반복하여 읽으면서도 굳이 풀이하는 법이 없었다. 외우면서 읽어 깨우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구절마다 매번 세세히 풀이해 가며 읽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양천상은 매 장마다 1백 번씩 반복해서 읽었다. ③ 양천상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책을 읽지 못한 날 외에는 꼬박꼬박 책을 읽었다. ④ 양천상의 독서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집중한다는 것에 있다. ⑤ 양천상은 독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양천상은 매 장마다 1백 번씩을 읽는 것을 법도로 삼았고, 그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보기>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독서의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독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읽는 방법이 지문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 양천상은 책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그저 꾸준히 외우면서 읽어 깨우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② 양천상은 굳이 풀이하려 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읽으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④ 양천상은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책을 읽었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책을 선별하는 등의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 ⑤ 양천상은 혼자서 스스로 세운 목표량만큼 읽어 외운 후에야 다른 이들을 응대했다. 토론하며 읽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3.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에 소개된 방법론 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양천상이 무조건 빨리 읽어서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양천상은 허투루 읽지 않았고 반복하여 외우면서 읽어 깨우쳤다. 즉, 깨우쳐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독서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화하려고 한 A뿐만 아니라 양천상도 한 권을 읽더라도 온전히 깨우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오답풀이] ② 경쟁적으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둘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③ 양천상이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A는 모르는 내용에 의심을 가지고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복해서 읽는다고 그렇게 된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④ 양천상은 책 읽기 자체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모두 읽는 태도에 가깝다. ⑤ 책의 내용을 외우는 것이 최선의 독서법이라는 진술을 A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4 ~ 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9쪽

4.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보험 계약자에게 다른 채무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제삼자인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2009년의 대법원 판결, 2011년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이행 인수 계약'과 '제삼자를 위한 계약'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법적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분석한 부분은 없다. ② (가)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를 '이행 인수 계약'과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법률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고 가상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인 현안에 대해 다루고 있지도 않다. ⑤ (가)에는 특정 법률의 변천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나)에는 추심 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보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이 언급되어 있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험 회사가 적립하여 형성된 책임 준비금에서 해약 수수료를 뺀 금액은 보험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이다.

[오답풀이] ② 요약자는 수익자에 대한 급부 이행을 요청한 자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이다. 낙약자는 요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하기로 승낙한 자이므로 보험 회사이다. ③ 채권자가 해약 환급금 청구권 같은 재산적 권리를 압류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추심 명령을 얻어야 한다. ④ 제삼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도록 맺는 계약인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금전을 받아 다시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⑤ '이행 인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익을 얻는 제삼자가 어떤 권리를 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권리 관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존 권리 관계에 없는 다른 이에 의해 이행되는 급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사례를 도표의 형태로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은 '정'에게 제삼자인 '을'에 대한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ㄱ). 참고로, '급부 이행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갑'이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에 따라 생기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행 인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을'이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ㄴ). '이행 요구'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지, '이행 인수 계약'의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한편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요약자인 '갑'이 아니라 낙약자인 '정'에게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ㄷ). 기존 계약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는 아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권리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제삼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곧바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수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때에 생긴다.

[오답풀이] ①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급부 청구권을 갖게 되는 제삼자이다. ③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의 법적 효력은 보상 관계, 즉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에 의존한다. ④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나 낙약자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로 보상 관계가 무효가 되면 보상 관계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도 소멸된다. ⑤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다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상대가 채무를 다할 때까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의 급부 청구에 따른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제삼자를 위한 계약' 중에 '타인을 위한 보험'(보장성 보험)이 제시되어 있다. A, B, C는 각각 수익자, 낙약자(보험 회사), 요약자(보험 계약자)에 해당한다. C는 보험 계약 이외에 다른 채무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채권자인 은행은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A의 보험금 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2011년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사례이므로 추심 명령에 따라 보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은행은 해약 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

[정답풀이] C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B에 의해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강제 집행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은행이 해약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험 계약의 해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은행이 해약 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다. 또한 은행이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보장성 보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심 명령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보험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하므로 제삼자인 수익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④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법적 효력은 보상 관계인 B와 C의 관계에 의존하며 원인 관계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수익자는 은행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은행의 압류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 ⑤ C는 낙약자가 아니라 요약자이다. 따라서 C가 낙약자의 입장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낙약자는 보험 회사인 B이다.

9.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판례와 법률 조항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도 해약 환급금 청구권 자체는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압류 금지된 것은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계약 해지하여 발생한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다.

[오답풀이] ① 2009년 대법원 판결은,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여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채권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마저 소멸하므로 이 판결은 수익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② 2009년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해약 환급금 청구권이 압류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판결하였다. ③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해약 환급금이 압류되지 못하게 했으므로, 추심 명령을 통한 보험 계약의 해지가 채권자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⑤ 2009년 대법원 판결은 보험 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보험료 체납과 같이 강제 집행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해약 환급금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의 채권자에 의해 일부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과 ㉡은 모두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지닌 다른 채무가 보험 계약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0～13]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7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펩시노겐은 펩신과 펩스타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활성 중심 부위 위에 펩스타틴이 걸쳐 있으므로, 활성 중심 부위는 펩스타틴이 아니라 펩신에 있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활성 중심 부위를 구성하는 아스파르트산은 펩스타틴이 아닌 펩신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들 중 하나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단백질은 분자량이 커서 체내에 직접 흡수되지 못하며, 적은 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톤들로 분해되어야 흡수될 수 있다. ② 위 내강 표면에 안으로 함몰된 구멍인 위 소와가 있고, 그 아래쪽에 위샘이 연결되어 있다. ③ 자가 촉매 반응의 속도는 생성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자가 촉매 반응이 진행되면서 생성물의 농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가 촉매 반응의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질 것이다. ④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뒤 복잡하게 꼬이고 접혀 형성된 입체 구조를 띤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펩시노겐에서 아스파르트산은 활성 중심 부위에 존재하며, 아스파르트산의 수소 양이온이 펩스타틴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된다. 수소 양이온이 활성 중심 부위로 이동할 때 활성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활성 중심 부위에서 펩스타틴으로 이동할 때 펩시노겐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펩시노겐은 펩신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인 펩스타틴이 펩신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띤다. ③ 위샘의 주세포가 아세틸콜린이나 가스트린의 자극을 받는 경우에,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위 내강으로 분비한다. ④ 펩시노겐은 위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중 주세포에서만 합성된다. ⑤ 펩시노겐의 활성 중심 부위는 중성 환경에서는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강한 산성을 띠는 위 내강에서 활성화된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가상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단백질 분해에 장애를 겪는 두 환자의 장애 원인과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갑'의 경우 벽세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위산이 분비되지 않을 것이다. '을'의 경우 주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분비되는 펩시노겐의 양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처방에서 언급된 약물은 활성 중심 부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강한 산성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도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정답풀이] 투약 후 '갑'은 위 내강이 강한 산성 환경이 아닌 상태이지만 분자 내 활성화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활성화된 펩신에 의해 자가 촉매 반응도 활발하게 나타나서 단백질 분해가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투약 후 '을'은 펩시노겐의 분비량이 여전히 정상보다 적은 상태에 있다. 애초에 펩신의 양이 적은 상태이므로 단백질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투약 후 '갑'이 아니라 투약 후 '을'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투약 전 '갑'의 경우에도 펩시노겐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므로 투약 전후의 '갑'의 펩시노겐 분비량은 비슷할 것이다. 투약 전후의 '갑'은 벽세포 기능의 상실로 위산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런데 투약 후 '갑'에게서만 펩시노겐의 활성 중심 부위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분자 내 활성화 과정과 자가 촉매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투약 전 '갑'은 위 내강에서 펩시노겐의 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이지만, 투약 후 '갑'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② 투약 전 '갑'은 벽세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위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약 전 '을'은 주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펩시노겐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투약 전 '갑'은 투약 전 '을'에 비해 위 내강으로 분비되는 펩시노겐의 양이 더 많고, 위 내강의 환경이 더 약한 산성일 것이다. ③ 투약 전 '을'은 주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단백질 분해에 문제가 없는 '병'에 비해 분비되는 펩시노겐의 양이 더 적을 것이고, 그 결과 시간이 흘러도 활성화된 펩신의 양이 더 적을 것이다. ⑤ 주세포의 기능이 정상인 '갑'은 위 내강으로 분비되는 펩시노겐의 양이 '병'과 비슷할 것이다. 또한 투약 후의 '갑'은 펩시노겐이 분해됨에 따라 자가 촉매 반응도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펩신의 농도 증가 역시 '병'과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펩신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펩톤이 늘어나는 속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이루어진(이루어지다)'은 문맥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그 악단은 최정상급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져 있다.'에서 쓰인 '이루어지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4～17] 인문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크립키는 '분자 운동은 없지만 열이 있음'의 상황 S2에 대한 상상은, 실은 분자 운동은 아니지만 열과 유사하게 따뜻함의 감각을 산출하는 것에 대한 상상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크립키에 따르면 분자 운동이 아니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은 상상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열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일 뿐이다.

[오답풀이] ② 크립키가 비판하는 물리주의는 정신 상태와 뇌의 물리 상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물리주의이다. ③ 힐에 따르면 어떤 감각 상태에 대한 '공감적 상상'은 상상하는 자가 스스로, 상상 속의 존재가 느끼는 그 감각 상태와 유사한 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④ 힐에 따르면 어떤 물질을 과학적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지각적 상상'에 해당한다. ⑤ 크립키는 'C-신경 섬유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고통'에 대한 상상이 결함이 없는 상상이라고 보지만, 힐은 그것이 두 가지의 독립적인 상상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묶여 있는 것으로서 결함이 있는 상상이라고 본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종 동일성 문장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이면 필연적으로도 참이 되는 문장이다. "열은 분자 운동과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종 동일성 문장으로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이면 필연적으로도 참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이 현실적 참이면서 동시에 필연적 참이 아닐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공룡'은 자연종 명사이지만 '중생대 말에 멸종한 어떤 동물'은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지도 불명확해서 특정 종 전체를 지칭하는 자연종 명사가 아니다. 따라서 "공룡은 중생대 말에 멸종한 어떤 동물과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종 동일성 문장이 아니다. ③"열은 분자 운동과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종 동일성 문장이므로, 이 문장이 말하는 바가 과학적 사실이라면, 그 문장이 거짓일 가능성도 없다. ④"고통은 C-신경 섬유의 자극과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종 동일성 문장이므로, 그것이 필연적 참이 아니면, 그것은 현실적 참도 아니다. ⑤"고통은 C-신경 섬유의 자극과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종 동일성 문장이므로, 그것이 현실적 참이라면, 그것은 필연적 참이기도 하다. 즉, 그것이 현실적 참이라면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C-신경 섬유의 자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신체 없이 고통과 같은 감각이나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16. [출제의도]지문에 언급된 특정 대상들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고통이라는 감각 자체에 대한 상상이지만 S2에 대한 상상은 열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함의 감각을 일으키지만 열이 아닌 무언가에 대한 상상이다.

[오답풀이] ①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결함이 없는 상상이다. ②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진짜 고통에 대한 상상이지만, S2에 대한 상상은 진짜 열에 대한 상상이 아니다. S2에 대한 상상은 따뜻함을 일으키는 무언가에 대한 상상이다. ④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당한 것이지만, S2에 대한 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상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상상이다. ⑤ 크립키에 따르면 S1에 대한 상상은 정당한 것으로서 P가 현실적 거짓임을 보여 주지만, S2에 대한 상상은 결함을 가진 것으로서 Q가 현실적 거짓임을 보여 주지 못한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크립키와 힐에 따르면 (가)에 대한 상상은 물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감각과 동일한 감각을 일으키지만 물이 아닌 XYZ에 대한 상상이다. 크립키에 따르면 (나)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색 감각 A가 우리의 특정 신체 상태 B와 동일하다.'는 물리주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상상이다. (나)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특정 신체 상태 B를 갖지 않지만 우리와 동일한 색 감각 A를 갖는 외계인에 대한 상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힐에 따르면 그러한 상상은 지각적 상상과 공감적 상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상상으로서 '우리의 색 감각 A가 우리의 특정 신체 상태 B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정당한 상상이 아니다.

[정답풀이] 힐에 따르면 (가)에 대한 상상은 진짜 물에 대한 상상이 아니므로 그것은 물에 대한 지각적 상상도 아니다. 따라서 (가)에 대한 상상은 "물이 H_2O와 동일하다."를 부정하는 정당한 근거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크립키에 따르면 (가)에 대한 상상은 '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유사한 감각을 산출하지만 H_2O가 아닌 것' 즉 물이 아닌 것에 대한 상상이다. ② 크립키에 따르면 (나)에 대한 상상은 정당한 상상으로서 '우리의 색 감각 A가 우리의 특정 신체 상태 B와 동일하다.'는, 즉 정신 현상이 물리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물리주의를 부정한다. ④ 힐에 따르면 (나)에 대한 상상은 신체에 대한 지각적 상상과 색 감각에 대한 공감적 상상이 묶여 있는 상상으로서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상상이다. ⑤ 크립키와 힐에 따르면 (가)에 대한 상상은 진짜 물에 대한 상상이 아니지만 (나)에 대한 상상은 진짜 신체와 색 감각에 대한 상상이다. 하지만 힐은 크립키와 달리 (나)에 대한 상상을 지각적 상상과 공감적 상상이 서로 묶여 있는 정당하지 않은 상상으로 간주한다.

[18 ~ 21] 현대소설

➔ 작가 연계 : 서정인, 「후송」 (수능특강 170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 중위가 도봉산 입구로 접어들 때까지 지프차, 승용차, 버스 등 다양한 차들이 연이어 그의 곁을 지나치는데, 그 많은 차들 중 '신형 미군 사분의 삼 톤 차(=스리쿼터)'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선 자리에 서서' 그 '사라져 가는 차의 꽁무니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성 중위가 병원 창밖 풍경을 바라본 때는 '한국의 유명한 가을 하늘이 높고 맑게 갠 어느 날 오후'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가을날의 아침 풍경에 이끌렸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성 중위가 '편승해 가자는 심산'에서 스리쿼터 운전자에게 '손을 쳐들'어 신호를 보낸 것은 '17번 도로의 험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언덕길을 오를 때 편승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④ 스리쿼터가 전복된 것을 확인한 성 중위는 달려오는 '미군의 스리쿼터'를 세워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대 본부에 연락을 취해 구조 인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⑤ '성 중위님을 안 태워 줘서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라는 사병의 말은 성 중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웃으며 던진 그 사병의 말을 듣고 '성 중위는 웃지 않았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의 착잡한 기분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주로 성 중위의 상황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 드러나고 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무엇인가가 그를 눌러 오고 있었다.'와 같이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서술도 중간중간 드러나고 있으며, '그때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 사고가 말이다…….' 부분에서는 그의 내면과 서술의 초점이 일치되고 있다. 이후에도 성 중위의 행동이나 상황, 그리고 그의 내면 풍경이 지속적으로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둔 서술과 의식에 초점을 둔 서술을 교차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성 중위의 행위와 내면에 서술의 초점을 두고 그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만한 인물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③ 인물의 내면과 태도가 부각되는 부분에서는 인물의 주관이 드러나는 진술이 사용되었다.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일관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모든 문장의 서술어 시제가 시종일관 과거형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다.

20.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특정 구절에 함축된 상황과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성 중위가 부인하고자 하는 '그것'은, 자신이 전복된 차량 속 군인들을 '저주'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에 이어지는 내면의 서술이 보여 주는바, 성 중위는 자신이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 사고가 난 차량에 자신이 탔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떠올린 인물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가을'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난 행위이고, ㉡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첫여름'에 일어난 행위이다. ㉠과 ㉡의 행위 이후 벌어진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스리쿼터가 그의 곁을 전속력으로 지나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으로 시작되는 문단의 내용은 ㉠ 이후의 상황으로부터 연상된 과거의 일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의 행위가 벌어진 시간은 ㉡의 행위가 벌어진 시간 이후에 해당한다. ② ㉡이 스리쿼터 전복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다면, ㉣은 그 사건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으므로, ㉡과 ㉣은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있었던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성 중위가 편승 요청을 거절당한 직후의 짧은 순간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문제화한 진술이다. '성 중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성 중위 자신이 '그들을 저주하였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 성 중위가 승차를 거부당한 상황에 대해 순간적으로 느꼈을 불쾌감을 암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도봉산 산보에서 돌아왔을 때'라는 진술을 고려하면 ㉤은 ㉠의 행위와 같은 날 이루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에서부터 ㉤ 이전까지의 대목은 성 중위가 연상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므로, 성 중위가 술에 젖어 있었다는 ㉤의 진술은 ㉠의 행위 이후 과거의 사건을 떠올린 성 중위가 내면에서 솟아나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음을 짐작하게 한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 중위의 귀에 '아아 아 아 –'라는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충격적 사건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명히 재현되는 정신적 외상의 후유 증상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성 중위가 사고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판단은 <보기>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성 중위가 연대 본부로 가면서 자신이 스리쿼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원망했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와중에도 '아아 아 아'라는 신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문의 맥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스리쿼터'가 성 중위의 '주의를' 끈 것은, 이 상황이 그에게 '충격적인 풍경'으로 기억되고 있는 스리쿼터 전복 사건 직전의 상황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그가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연상하도록 했을 것이다. ③ 성 중위는 어릴 적 의도치 않게 살쾡이를 죽인 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무서움에 떨었다'. 그런 자신을 엄마가 꾸짖고, 또 쓰다듬어 준 뒤에야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엄마는 그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과 용서라는 두 가지 행위를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가 잘못된 행위를 범하고 난 뒤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엄마의 행동은, 행위를 반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 26] 고전시가–수필

➔ 연계 지문 : 이신의, 「사우가」 (수능완성 246쪽)
| 정약용, 「수오재기」 (수능완성 214쪽)
➔ 정구, 「청산아 웃지 마라~」

2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3수>는 화자의 독백으로 볼 수 있으며, (나)는 화자가 '청산'과 '백운'에게 건네는 말로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제1수>는 풍상에도 여위지 않고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소멸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에는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제1수>에서 화자는 소나무의 변함없는 '봄빛'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다른 식물들은 봄철을 맞아 푸른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그 빛을 잃고 마는데 소나무는 그 푸른빛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수>에서 화자는 눈 속에서 하얗게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매화가 귀하다고 말한다. '흔 빛'은 매화의 빛깔이 눈과 같이 희다는 뜻으로, 봄에 피는 다른 꽃들과 달리 눈 내리는 때에 피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바위'가 인적이 드문 장소라고 볼 이유는 없으며, '동리' 또한 그러하다. <제2수>의 초장은, 사람들이 국화를 흔히 볼 수 있지만 귀한 줄은 모른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②'풍상'은 대상에게 시련을 주는 혹독한 자연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풍'의 경우, 화자는 대나무가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나무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맑고 시원한 바람을 맞아 반기기라도 하는 듯이 여유로운 태도로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청풍'을 시련을 주는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3수>에서 화자는 세상에 꽃의 종류가 무한히 많지만 유독 매화가 귀하다고 하면서, 매화의 속성에 자신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꽃이 무한ᄒᆞ'다는 말은 꽃의 종류가 많다는 뜻일 뿐, 그 꽃들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예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③화자가 다른 무엇보다 국화를 벗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국화가 지닌 것과 같은 청고함이라는 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도 그의 나를 잃고 그 나를 뒤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라는 구절은 글쓴이처럼 둘째 형도 자신의 '나'를 잃고 그 '나'를 뒤쫓아서 남해 지방으로 왔다가 자신의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둘째 형이 글쓴이를 뒤쫓아서 글쓴이의 유배지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다. 참고로 글쓴이의 '둘째 형님 좌랑공'은 흑산도('남해 지방')에 유배되어 『자산어보』 등을 집필한 정약전이다.

[오답풀이] ①'청산'과 '백운'이 화자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생각은, '청산'으로 가지 않고 늙어서까지 홍진에 머물며 벼슬살이에 분주하게 지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화자는 자신이 늙어서까지 홍진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홍진에서의 벼슬살이를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러니 비웃지 말라고 항변한다. 자신의 현재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나'가 자신의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나'를 뒤쫓아 달려서 '나'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다는 말에서, 성찰의 주체인 '나'(뒤쫓아 달린 '나')와 행위의 주체인 '나'(앞에서 달린 '나')가 구분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성찰의 주체인 '나'가, 오래전에 자신을 떠나갔던 '나'(행위의 주체)를 붙잡아 함께 머물렀다는 말은, 마침내 그 둘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본연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던 것이나 관직에 올라 분주했던 것이나 유배를 오게 된 것이 모두 '나'를 잃어버렸던 삶이라 말한다. 글의 마지막 문단 '큰형님'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유배를 오게 된 것이 오래전에 '나'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는 자신을 떠나갔던 '나'에게 하는 '나'의 말로서, 유배를 오게 되어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을, 물건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7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수능특강 88쪽)**

➔ **작가 연계 :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수능완성 188쪽)**

27.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독백적인 어조로 자신의 삶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에서는 '봄이 오던 아침'에서 '봄은 다 가고'로 이어지는 시상의 흐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으나,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았다. ⑤(가), (나) 모두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화자는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다른 공간으로의 출발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트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동 등을 볼 때 화자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은 기차를 타는 공간으로 화자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트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때 화자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화자의 고뇌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시인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날아가는 '비둘기 한 떼'는 자신과의 대비를 통해 시인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소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③㉢에서 화자는 고국인 ㉠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이는 순수한 자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이지 떠나온 고향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④㉣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과거의 '나'가 있는 공간으로 본다면, 과거의 '나'가 오늘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의 근처에 있는 ㉣에서 서성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를 현재의 '나'가 있는 공간으로 본다면, 현재의 '나'가 오늘도 과거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 ㉢의 근처에 있는 ㉣에서 서성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든 ㉣은 과거의 순수한 자아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 공간이라 볼 수 있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 ㉢에서는 '희망과 사랑', 내적 고뇌, 부끄러움, 그리움 등의 감정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는 내적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감정들이다. 또한 ㉣에서 화자는 '누구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내적 안정감을 가지고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29. [출제의도] 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 전체의 맥락을 볼 때, [D]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남을 의식하며 살면서도('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경외의 대상은 되지 못한('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타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하려는 심정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A]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종이'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종이'는 먼 훗날에 남겨질 것으로, 미래의 '나'가 현재 '나'의 삶에 대해 회고하여 남긴 기록이라 볼 수 있다. 그 회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B], [C]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D]에서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A]의 '이 종이'에는 [D]의 '짧은 글'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의 마지막 두 행, 즉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이다.) ②[B]에서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말은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겠다는 욕망이 과했다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말은 허망한 것을 쫓아 헤매다 보니 현실에서 이룬 것이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C]의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이 타인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뜻으로서,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저녁 거리'에 '청춘을 세워 두'었다는 말은,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치 남인 양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을 성찰하는 현재 '나'의 모습을 미래 '나'의 시점을 가정하여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봄은 다 가고' 나서 '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 있는 현재의 '나'는 '옛 거리에 남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옛 거리에 남은 나'는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 있던 '나'를 '봄이 다' 간 현재에도 그곳에 남아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는 과거의 '나'와 그것을 회상하는 현재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 그리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고 있는 것이다. ②'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라는 말은,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던 과거 '나'의 모습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현재 '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시인이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작품으로, 힘겨운 유학 생활 속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떠날 때의 순수한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기준으로 지금을 '그때'라고 표현한 것은, 미래의 '나'를 가정해 놓고 현재의 '나'를 과거형 표현으로 성찰한다는 시의 설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현재로, 현재를 과거로 그리는 방식으로 시적 시간이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는 말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나'가 현재 '나'의 삶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이는 현재적 시간으로 소환된 미래의 '나'의 발화를 통해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토끼전」 (수능완성 22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라와의 대화를 통해 토끼의 심리가 점차 변화하여 수부에 가기로 마음먹게 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⑤지문에서 속담과 고사는 인물이 자기 입장을 드러내거나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라는 토끼가 수부에 갈 경우 온갖 호강을 누릴 것이며, '수군절도사' 자리에 올라 위엄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휘하에 있을 것이라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자라는 수부의 대왕은 '마음이 참되고 문무를 두루 갖'춘 임금으로서, '한 가지 재주 있는 선비'라도 그 쓰임을 알아보고 '벼슬 직책'을 맡기므로, 토끼같이 '고명한 자격'을 지닌 이라면 '수군절도사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말하였다. ④자라는 '누구누구의 여간 꿈이라 하는 것이 무비관몽이요 개시허몽'이라고 하면서도, '오직 그대의 꿈은 몽사 중에 제일갈 꿈'이라며 '수궁에 들어가면 만인 위에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즉 토끼의 꿈이 길몽이며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임을 암시하는 특별한 꿈이라고 한 것이다.

33.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토끼는 자라가 '소진과 장의(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유세가들의 이름)의 말재주'와 '소강절(앞일을 잘 맞추기로 유명했던 중국 송나라 시대의 인물)'의 영험함을 지녔다고 칭찬하면서도, '남의 단점 너무 들추지 마시오. 듣는 이도 소견 있소.'라며 불쾌감을 드러낸다. 반면 [B]에서 토끼는 '노형의 해몽하는 법은 참 귀신 아니면 도깨비요. 소강절 이순풍이 다시 살아온들 이에서 더할쏜가.'라며 자신의 꿈에 대해 좋은 풀이를 해 준 자라를 극찬한다. 이에는 상대방을 달갑게 여기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A]에서 공자와 초패왕에 대한 고사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B]에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고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A]에 언어유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토끼가 자라의 무지를 조롱하고 있지도 않다. ⑤'이에서 더할쏜가'나 '내 부귀는 어디 가랴'는 설의적인 표현이지만, 전자는 상대에 대한 칭찬이고 후자는 자신의 앞날을 확신하는 마음을 드러낸 말이다. 자신의 뜻이 변치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염려가 조금도 없을 터'라는 자라의 말을 듣고 토끼가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라며 대답한 것은, 수부로 가는 일에 대해 자신이 품은 불안감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수부에 가면 관직을 하게 되리라는 상대의 말이 거짓임을 지적하여 반박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면 토끼가 지상에서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을 자라가 열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토끼는 자라가 자신을 '괄시'하였다고 느끼는데, 자라가 이처럼 토끼의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한 것은, 지상의 삶과 대조되는 수궁 삶의 호화로움을 언급하여 토끼를 충동질함으로써 그를 설득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⑤'만경창파'를 걱정하는 것은 곧 수궁 갈 일을 걱정한 것이므로, 토끼는 수궁을 가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한 자라는 '대희', 즉 크게 기뻐하고 있다. 토끼가 자신의 꾐에 거의 다 넘어왔다고 여기는 것이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35쪽**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미세 먼지의 개념, 인체 내 유입 과정과 영향, 미세 먼지가 많은 날의 대처법에 대해 차례로 알려' 주겠다고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나타난 자료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각 호흡 기관이 각기 다른 크기의 외부 이물질을 걸러 냄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자료 2'를 활용하고 있다. '코에서 코털이 물리적인 거름망 역할을 하고 콧물과 인두의 점액이 이물질을 흡착'한다고 이야기하며, 기도와 기관지에서도 같은 원리로 미세 먼지를 걸러 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호흡 기관마다 외부 이물질이 축적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에 '자료 2'를 활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머리카락의 단면과 미세 먼지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고 있다. ④, ⑤'폐 속 폐포는 모세 혈관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며, 1㎛보다 작은 입자가 '폐포로 유입된 외부 산소'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3'을 활용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보고 청중의 질문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답변을 보면 '호흡 기관의 필터 시스템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의 질문은 '보건용 마스크는 호흡기의 필터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8 ~ 42] 화법-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쪽, 수능완성 260쪽**

38.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학생 3'은 앞서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나도 같은 생각인데'라고 말하여 동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며 해결책에 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참여자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에게 게시판에 올릴 글을 작성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3'은 '그럴게. 지난 모둠 ~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 반응을 보고 '학생 2'는 '글은 학교 신문 ~ 주말까지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아.'라고 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A]의 '학생 2'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40. [출제의도] 기사와 대화의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따르면 학교 주최 캠페인인 '잔반 없는 날'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다)의 2문단에 건의 수용의 필요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는 잔반 배출로 처리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의 수용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나)에서 '학생 3'은 '잔반량의 증가는 ~ 해결이 필요해 보여.'라고 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잔반량 증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다)의 1문단에서 건의를 하게 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②(가)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된 급식 잔반의 양이 약 12톤이라는 내용이 (다)의 2문단에서 이로 인해 잔반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④(나)에서 '학생 1'이 '그렇잖아도 이웃 ~ 50 %나 줄었다더라고.'라며 친구에게 들은 사실을 언급한 내용이 (다)의 3문단에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⑤(나)에서 '학생 2'가 '배식 방식을 자율 배식으로 ~ 잔반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고 하여 자율 배식으로 변경했을 때의 예상 결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3문단에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41.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작문 목적 면에서, 예상 독자에게 필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은 (가)가 아니라 (다)이다.

42. [출제의도] 학생이 글을 수정한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잔반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이라고 한 내용은 ⓐ의 바로 앞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에서는 이를 '이러한 문제가'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담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아 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여 중복해서 서술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서는 이를 한 문장에 적절히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와 같이 수정한 이유는 ②이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9쪽

43. [출제의도]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시에서는 양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서술은 있으나 사람들이 도시 양봉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글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에 제시된 도시 양봉의 가장 큰 효과는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언급하면서 도시 양봉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실천해 볼 것을 권'하고 있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글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의 자료는 도시에서 꿀벌을 기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밀원 식물이 다양하고 고온 건조하며 농약에 의해 오염되어 있지 않아 도시에서도 양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밀원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에 다양한 밀원 식물이 서식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ㄱ에 따르면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하여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ㄴ은 도시 환경이 양봉에 적합한 이유 중 지문에 나타난 이유('밀원 식물'이 풍부) 외에 두 가지 이유를 더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2문단을 보강할 수 있다. ④ ㄷ을 활용해 양봉이 청소년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강할 수 있다. ⑤ ㄷ의 '붕붕'이라는 청소년 양봉 동아리를 청소년들도 양봉가가 될 수 있는 사례로 5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동사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동사 구성에 따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0쪽

'흘러가고 있다'에서는 합성 동사 구성과 보조 동사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흘러가다'는 '흐르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흘러가다'가 연속 동사 구성이었을 경우, 둘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썼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집어넣다'는 합성어이므로 두 동사 사이에 부사가 쓰일 수 없고, '집어 들다'는 두 개의 본동사로 구성되었으므로 두 동사 사이에 '집어 번쩍 들다'와 같이 부사가 쓰일 수 있다. ③'씹고 뜯다'는 연속 동사 구성에 해당한다. 이 경우 '씹거나 뜯다', '씹어서 뜯다'와 같이 연결 어미 '-고' 이외에도 다양한 연결 어미가 두 동사 사이에 쓰일 수 있다.

36. [출제의도] 보조 동사 구성에서 본동사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와 본동사가 합성 동사인 경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0쪽

'구해는 달라고'의 '는'은 보조사이다. '매달아 놓았다'의 '매달아'는 '매다'와 '달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오답풀이] ①'모여서 살았다'는 본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한 구성이다. 또한, '-어서'는 조사가 아닌 어미이다. ③'생각해 두어라'의 '생각하다'는 어근 '생각'에 접사 '-하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짓밟아 버렸다'의 '짓밟다'는 접사 '짓-'과 어근 '밟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따지고 들었다'의 '따지고'는 어간 '따지-'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경우이고, '떠들어 댄다'의 '떠들어'는 본동사가 단일어인 경우이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결과 달라진 음운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2쪽

'물역학[물려칵]'에서는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의 개수가 8개로 동일하다. '넓은잎[널븐닙]'에서는 음운 변동 전 8개였던 음운의 개수가 음운 변동 후에 9개로 늘어났다. '목흙손[모큭쏜]'에서는 음운 변동 전 10개였던 음운의 개수가 음운 변동 후에 8개로 줄었다.

[오답풀이] ②'소합유[소함뉴]'는 ㉡에 해당한다. ③'각혈암[가켜람]'은 ㉢에 해당한다. ④'겹이불[겸니불]'은 ㉡에, '일여덟[이려덜]'은 ㉢에, '헛삶이[헏쌀미]'는 ㉠에 해당한다. ⑤'젊은이[절므니]'는 ㉠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문장에서 명사절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6쪽

㉢의 명사절 '비가 오기'는 의존 명사 '때문'을 수식하고 있다.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0쪽

ⓑ의 '일케 ᄒᆞ야뇨'는 '잃게 했는가'로 풀이된다. 또한, 형태가 '-게/긔'와 보조 용언의 결합의 구성이므로, 사동에 해당한다. ⓒ의 '기피시니'와 ⓓ의 '씨오ᄂᆞ니'는 각각 '깊게 하시니'와 '깨우니'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접미사를 활용한 사동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의 '자피여'와 ⓔ의 '조치여'는 각각 '잡히어'와 '쫓겨서'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접미사를 활용한 피동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의 '글희여 디거늘'은 '풀리거늘'로 풀이되고, 그 형태가 '-어 디다'이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40 ~ 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57쪽

40. [출제의도] 매체로서의 신문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문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확인한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면의 기사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신문에 사용된 시각 언어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래프에 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넷째 카드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 일반 시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각각 항목화하여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넷째 카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일반 시민)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만 번호를 붙여 제시하고 있다.

[43 ~ 45] 매체 2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11쪽

(가)는 소비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는 코너에 걸맞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 소비 분석 센터' 연구원을 등장시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나)에 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 주된 청취자층을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가)는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③등산용품 구매와 관련한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등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가)이다. ⑤(나)는 (가)에 비해 소량의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63쪽

㉢에는 의문문의 형식이 사용되어 있다. 하지만 ㉢은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상대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연구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61쪽

'자료'의 그림 기호들은 ◇◇ 등산화가 등산은 물론 낚시와 캠핑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특정 연령대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제품의 기능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